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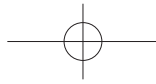
메디컬칼럼
Cure & Care

34

사람과 사람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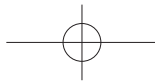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영도 결국은 사람이 최종 경쟁력이라 하고, 하이 테크놀로지도 사람이 있어야 소용이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도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놀랍게도 사람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학의 분야에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다루었던 참회의 역사가 있다.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은 의학연구 중 가장 유명한 연구는 2차 대전 중 독일과 일본이 실시한 강제 인체실험이지만, 전쟁 후에 문명화된 사회에서 (밝혀진 연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연구(Tuskegee Syphilis Study)이다. 이 연구는 앨라배마주 터스키기 지역의 흑인 남성 399명을 대상으로 매독의 자연 경과를 조사하기 위한 관찰 연구였다. 연방정부 산하 공중의료서비스국(Public Health Service)의 주도하에 1932년부터 1972년까지 4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연구의 목적은 매독의 자연 경과와 함께 말기에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사들은 가난한 흑인들에게 공짜로 건강검진을 해 주고(매독 환자를 찾는 과정), 아픈 사람(매독 환자)은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사실은 아스피린과 철분제를 준 것이 전부였다) 식사까지 제공했다. 그들에게는 매독이란 진단 대신 '나쁜 피(Bad blood)를 가진 병'이라는 병명이 붙었고 치료라는 미명하에 뇌척수액을 빼내는 시술과 혈액 채취가 시행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던 1943년, 매독에 특효약이라 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개발되고 1951년에 매독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연구자들은 이러한 약제의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부가 해당 지역 의사들과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연구 대상자가 된 흑인들이 병원에 올 경우 그냥 돌려보내라는 요구까지 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을 철석같이 믿고 몸을 맡긴 흑인들은 매독으로 죽어갔고 아내(성관계)와 자식(태아 때 모체에서 옮는 선천성 매독)까지 감염되는 비극을 맞이 하였다.

그러던 중 1972년 한 신문기자의 제보에 의하여 이 연구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 상황은 미국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결국 1972년, 연구는 중단되었으며,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었지만 참여했던 의사들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연구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족들은 정부에 소송을 걸어 총 1천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1997년 5월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의학연구를 위해 사람을 착취한 이 연구는, 참여하는 흑인들에게 동의조차도 구하지 않았고 마치 특별한 치료를 하는 듯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계획서조차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연구초기인 30년대 초반에는 매독 치료제



가 없었기에 질병의 경과만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40년대 초반에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에도 연구참여자들을 속이면서 치료제를 제공하지 않고 30여 년간 연구가 계속되었다는 점이 있다. 당시에 연구하던 의사들과 보건당국에게는 ‘사람’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흑인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74년 미국에서는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이 만들어져 임상연구의 조건이나 실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연구법에 의해 설립된 인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는 1979년에 임상연구 윤리철학과 과학적 실행의 근간이 되는 벨몬트 리포트(Belmont report)라는 문서를 제정하여 모든 의학연구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연구원칙을 정하고 현재까지 그 원칙에 따라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학 역사 가운데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 비윤리적 연구사례가 많이 있다. 모두 ‘사람’보다 다른 가치들이 상위에 서게 될 때 생겨난 비극들이다. 의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앞의 ‘사람’보다 외모가, 타고 온 차가, 사회적 지위가, 질병의 진단명만이 내 눈을 덮으면, 내 눈앞의 ‘사람’을 보기 어려워진다. 사람보다 데이터를 더 소중히 여긴 터스키기의 의사선배들을 생각하며, 내 눈을 덮은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내 앞에 있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자고 다짐한다.



글 |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을장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